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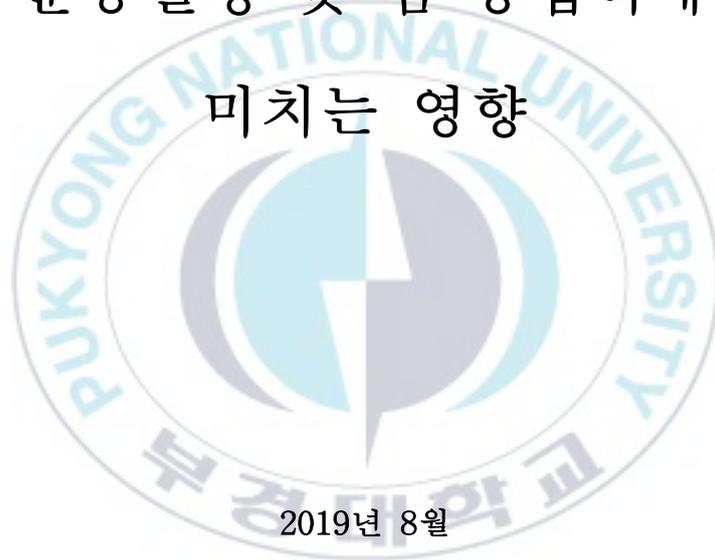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고등학교 야구선수들이 지각한 지도자의
변혁적리더십이 자아탄력성,
운동열정 및 팀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



2019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김백만

교육학석사학위논문

고등학교 야구선수들이 지각한 지도자의
변혁적리더십이 자아탄력성,
운동열정 및 팀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송 용 관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김백만

김백만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8월 23일



주 심 이 학 박사 김 태 규



위 원 체 육 학 박사 임 새 미



위 원 체 육 학 박사 송 용 관



목 차

목차	i
표 목차	iii
그림 목차	iv
Abstract	v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6
3. 연구 가설	6
4. 연구의 제한점	7
5. 용어의 정의	7
II. 이론적 배경	9
1. 변혁적리더십	9
2. 자아탄력성	14
3. 운동열정	16
4. 팀 응집력	19
III. 연구방법	24
1. 연구대상	24
2. 측정도구	25

3. 연구의 모형	32
4. 자료처리 방법	33
IV. 연구결과	34
1. 변혁적리더십, 자아탄력성, 운동열정, 팀 응집력 간의 상관관계 ...	34
2. 변혁적리더십, 자아탄력성, 운동열정, 팀 응집력 간의 인과관계 ...	35
1) 변혁적리더십이 자아탄력성과 팀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	35
2) 변혁적리더십이 운동열정과 팀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	37
3) 변혁적리더십이 자아탄력성, 운동열정 및 팀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	39
4) 각 변인 간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41
V. 논의	44
1. 변혁적리더십이 자아탄력성과 팀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	44
2. 변혁적리더십이 운동열정과 팀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	45
3. 변혁적리더십이 자아탄력성, 운동열정 및 팀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	47
VI. 결론 및 제언	50
1. 결론	50
2. 제언	51
참고문헌	53
부록	64

표 목차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4
표 2. 변혁적리더십의 확인적 모형 적합도 지수	26
표 3. 변혁적리더십의 경로계수	27
표 4. 자아탄력성의 확인적 모형 적합도 지수	28
표 5. 자아탄력성의 경로계수	29
표 6. 운동열정의 확인적 모형 적합도 지수	29
표 7. 운동열정의 경로계수	30
표 8. 팀 응집력의 확인적 모형 적합도 지수	31
표 9. 팀 응집력의 경로계수	31
표 10. 각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34
표 11. 각 변인 간 인과관계 경로계수	35
표 12. 인과효과 분해	36
표 13. 각 변인 간 인과관계 경로계수	37
표 14. 인과효과 분해	38
표 15. 각 변인 간 인과관계 경로계수	39
표 16. 인과효과 분해	40
표 17. 구조방정식 모형 적합도 지수	41
표 18. 구조모형 변인 간 경로계수	41

그림 목차

그림 1. 응집력의 이론적 모형	22
그림 2. 연구 모형	32
그림 3. 변혁적리더십과 자아탄력성 및 팀 응집력의 경로모형	36
그림 4. 변혁적리더십과 운동열정 및 팀 응집력의 경로모형	38
그림 5. 변혁적리더십, 자아탄력성, 운동열정 및 팀 응집력의 경로모형 ...	40
그림 6. 구조방정식 모형	42



**The effect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perceived by high
school baseball players on ego resilience,
exercise passion and team cohesion**

Kim, Baek Man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ong, Yong Gwan, PhD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high school baseball players perceived by ego resilience, exercise passion and team cohesion, and to provide psychological basic information and important implications to the leaders who teach baseball players.

In this study, the questionnaire was retrieved by using the purposeful sampling method in area of B, K, T high school baseball players in 2019. After describing the purpose and intention of the research and receiving the research ethics agreement, the self-administration method of instrument was enacted. A total of 324 students were sampled, and 24 subjects whose responses were judged to be poor or unreliable were excluded from the analysis and 300 were selected as the final validity sampl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five Likert-type scale and Window SPSS program 22.0 and AMOS 22.0 as the data analysis method. The data processing method is as follows. First, frequency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Second, we conducte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o verify construct validity and goodness of fit by factor, and verified Cronbach's α coefficient of reliability to analyze internal consistency. Third,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variables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ego resilience, exercise passion and team cohesiveness of coaches perceived by high school baseball players. Fourt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conducted to verify causality between variables. All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set at $p < .05$. The conclus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ransformational leadership has a positive effect on ego resilience and team cohesiveness. Seco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has a positive effect on exercise passion and team cohesion. Third, ego resilience and exercise passion showe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relation to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team cohes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baseball leaders should demonstrat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o the athletes in the field to enhance team cohesion, lead to self confidence, satisfaction and ultimate goal performance improvement. Especially, It is important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improving ego resilience and exercise passion, which is an important psychological variable, and to apply various psychological skills training programs suitable for individuals.

Key word : transformational leadership, ego resilience, exercise passion, team cohesio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팀 스포츠의 결과는 지도자의 역량과 자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야구 지도자는 야구 훈련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고 동기를 유발시켜 학습에 대한 자극을 주어 선수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며, 운동선수들로 하여금 학습경험을 통하여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

결국, 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있어 야구 지도자의 리더십이 선수 개개인의 내·외적 동기와 역량을 높이는데 영향을 주고, 팀의 응집력과 경기 승패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결과를 얻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적 요소라 할 수 있다.

Weinberg와 Gould(1995)는 지도자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지도자는 선수들에게 뚜렷한 목표설정을 통해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한다고 하였다. 야구라는 종목은 지도자의 역할이 고등학교 야구부와 프로 야구단이 상이할 수 있는데 특히 프로 야구단 선수들은 부와 명예를 중시하기 때문에 감독과 코칭스텝과의 거래적 리더십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고등학교 야구부는 거래적 리더십보다 아직 미성숙 단계에 있는 학생 선수들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개개인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대하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변혁적 리더십이 학생 선수들에게는 매

우 필요한 지도자의 역량이다.

변혁적리더십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운동동기와 조직몰입의 관계(김학재, 양명환, 김덕진, 2010), 변혁적리더십이 운동만족과 지도효율성에 미치는 영향(김재식, 심영균, 이석준, 2018) 등의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또한, 변혁적리더십이 팀 응집력과 관련하여 임파워먼트, 운동만족, 몰입 등의 심리적 변인이 매개효과 및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팀 응집력에 예측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요소 중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미흡하다.

야구 경기에서는 각 포지션별 이전 자극에 대해 부정적 요소들이 심리적 잔해로 남아 연습할 때의 경기력과 실전에서의 경기력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투수나 타자들이 실수했을 경우, 지도자의 피드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따라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자기 자신을 어떻게 통제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기술이 야구 선수들에게는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자아탄력성을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으로 한 연구(강지훈, 2012; 최미리, 이양출, 2012)에서 자아탄력성은 운동지속의도를 통한 팀 수행과 상호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

자아탄력성이란 스트레스로부터 이전에 자신을 통제하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Cohn, Fredrickson, Brown, Mikels, & Conway, 2009), 부정적인 내·외적요구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개인의 능력 및 기질로 정의된다(Block & Kremen, 1996). 일반적으로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자아탄력성이 낮은 자아를 가지고 있는 개인에 비해 부정적 상황에 대처능력이 뛰어날 뿐 아니라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긍정적 에너지가 높다(고은정, 1997). 그리고, 자아탄력성이 높은 개인은 전반적으로

로 자기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Klohn, 1996). 그리고 성격적 측면에 있어서도 외향적이고 심리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으며 자신의 직관에 대해 개방적인 편이다(구형모, 2000). 이처럼 자아탄력성은 환경적 측면과 개인 적응 기제 등 다양한 변수와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심리적 변인과 행동을 측정하는데 용이하다(정혜인, 2010; Revich, & Schatte, 2002).

따라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고등학교 야구 선수들의 경우 불안 및 초조함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서도 호의적인 정서와 함께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고 적절한 자아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Block & Kremen, 1996). 스포츠에서 시합장면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일 때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대응한다. 자아탄력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자아탄력성과 상관성이 높은 요인으로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회복력 등을 들고 있으며, 자아탄력성은 개인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강조하고 있다(Klohn, 1996; Tugade, Fredrickson, & Feldman, 2004).

이처럼 자아탄력성은 경기의 승패와 직결되는 팀 응집력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고 유추할 수 있다. 위급한 경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자아탄력성이 높은 선수들은 집단과 상호작용하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자아탄력성은 팀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매개체로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안아주와 김은하(2016)는 운동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어 운동정체성이 약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아탄력성을 높이면 운동 스트레스가 우울로 이어질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하였고, 강지훈(2012)은 생활체육 참가자의 심리적 욕구와 운동지속 및 포기의도의 관계 연구를 통해 자아탄력성이 매개효과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백혜경과 양

명환(2017)은 운동선수들이 심리적 행복을 느끼는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운동탈진 요소를 감소시키는 자아탄력성이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 변인은 변혁적리더십과 팀 응집력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유추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운동열정은 스포츠 수행에 대한 심리적 기대를 나타내는 인지몰입과 스포츠 수행에 대한 행위몰입으로 구성된 스포츠몰입을 예측하는 선행인자로서 선수들이 자신의 종목에 열중하는데 필요한 핵심 요인이자 선수들이 운동에 몰입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한다(Cao, 2017).

운동열정과 몰입의 관계를 분석한 다양한 연구(Cao, 2017; 김영갑, 최경훈, 2016; 김옥한, 이봉, 2015; 소영호, 2019)를 통해서도 운동열정은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운동열정은 스포츠몰입을 증가시켜 최상수행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해석된다.

고등학교 야구선수들의 운동열정은 지도자의 리더십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데 결정적인 이유로 지도자는 선수들이 대학 진학이나 프로에 입단하기 위한 목표설정을 뚜렷하게 해주고, 미래의 성공적인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게 각인시켜주며 대리경험과 언어적 설득을 통해 열정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열정을 높이는 예측변인으로 변혁적리더십이 선수들에게 중요한 심리변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소영호(2016)의 연구에서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이 코치와의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조화열정이 증가하고, 강박열정은 인지적·행동적 측면에서 코치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운동선수들이 인지하는 코치와의 관계가 운동열정과 높은 상호관련성이 있다고 밝힌 연구(Lafreniere et al., 2008,

Lafreniere, Jowett, Vallerand, & Carbonneau, 2011)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아울러 운동열정이 운동수행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간주된다고 볼 때, 리더십과 코치-선수관계가 운동만족, 심리적 욕구, 팀 응집력, 내·외적동기 등의 운동수행향상 관련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여러 연구(강신녀, 전정우, 정태겸, 2015; Adie & Jowett, 2010; Shorts, 2005; Sullivan & Gee, 2007) 결과와 그 맥을 함께하고 있다. 또한, 열정과 관련된 심리변인은 팀 응집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주원, 2015; 송춘현, 2003; 이현정, 2018)가 밝혀져 운동열정 요인 또한 팀 응집력과의 긍정적 관계가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변혁적리더십과 팀 응집력의 관계에서 운동열정은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정구인과 송기현(2017)은 긍정적 사고와 스포츠행복지각의 관계에서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열정이 매개효과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고, 강현우 등(2015)은 운동선수들의 완벽주의성향, 운동몰입의 관계에서 운동열정이 매개효과 역할을 한다고 하여 운동열정이 팀 스포츠에서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야구와 관련해서 변혁적리더십과 자아탄력성, 운동열정 및 팀 응집력과 관련하여 영향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며, 변혁적리더십과 팀 응집력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운동열정이 매개변인으로 간접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등학교 야구선수들이 지각한 코치의 변혁적 리더십이 자아탄력성, 운동열정 및 팀 응집력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야구선수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심리적인 기초 정보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야구 지도자들의 변혁적리더십이 자아탄력성, 운동열정 및 팀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야구선수들의 효율적인 지도를 위한 리더십 유형을 파악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리더십 발휘로 인해 긍정적 심리자본을 높여 팀 응집력에 기여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3. 연구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변혁적리더십은 자아탄력성과 팀 응집력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변혁적리더십은 운동열정과 팀 응집력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변혁적리더십은 팀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운동열정은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 경남, 대구 지역의 야구선수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에 따른 한계로 인하여 전체를 일반화 하는데 제한점이 따른다.

둘째, 본 연구는 양적연구로 고등학교 야구선수들의 심층면담으로 인한 개개인의 내면화되어 있는 심리적 요인을 파악하는데 한계점이 따른다.

5. 용어의 정의

1) 변혁적리더십

변혁적리더십은 선수들이 개인적 수준의 차원을 넘어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성과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시킴으로써 운동선수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리더십을 말한다(Burns, 1978). 본 연구에서는 변혁적리더십을 카리스마, 지적자극, 개별적 배려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로부터 이전에 자신을 통제하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부정적인 내·외적요구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개인의 능

력 및 기질을 의미한다(Block & Kremen, 1996).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을 환경 및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자아통제를 강화하거나 완화시키는 메타적 인지적 능력을 의미하며, 자아의 동기조절력과 인지력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3) 운동열정

Vallerand, Blanchard, Mageau, Leonard, Gagne, 그리고 Marsolais(2003)는 여러 신체적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열정을 측정했다. 이들은 열정을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참여할 때 시간과 에너지를 기꺼이 투자하고자 하는 성향”이라고 정의했다. 본 연구에서는 열정을 조화열정과 강박열정으로 분류하여 구성하였다.

4) 팀 응집력

팀 응집력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함께 협력해 나가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 개념은 ‘조직의 목표와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구성원들이 얼마나 함께 움직이고 협력하는지를 확인하는 역동적 과정’으로 정의된다(Carron, Widmeyer, & Brawley, 1985). 팀 응집력 연구는 응집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들을 규명하는 팀 만족도, 운동수행, 팀 효율성, 리더십과 같이 성과에 주로 관련되어 있다(허진영, 송기현, 2012). 본 연구에서는 팀응집력을 개인적 사회, 개인적 과제, 집단적 사회, 집단적 과제로 정의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변혁적리더십

최근 리더십 관련 연구는 변혁적·거래적 리더십과 관련된 새로운 리더십 유형을 도출하고 있다. Burns(1978)는 거래 중점적 관점에서 구성원의 욕구를 높여 개인, 집단,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고자하는 변혁적리더십 사이에 구별을 두었다. 또한 변혁적리더십은 리더와 구성원이 쌍방향으로 동기를 끌어올리는 과정이며, 구성원의 지지 그 이상의 것에 바탕을 두고 구성원의 신념, 욕구, 가치관의 변화를 조성하여 개인과 조직의 극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리더십이라고 본다(Burns, 1978). 기존의 리더십 이론은 집단의 비전 달성과 구성원의 관점에서 얻는 보상간의 교환만을 강조하는 거래적 리더십이며, 이러한 리더십은 구성원들로부터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 이상의 행동유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았다(Bass, 1985). 반면 변혁적리더십은 장기적 비전의 제시를 통해 구성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리더와 구성원간의 신뢰적 분위기를 만들어 개인의 역량을 높일 뿐 아니라 기대이상의 성과를 이끌어 내는 리더십이라고 하였다. 또한 구성원들로 하여금 개별적 목표달성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조직의 비전 달성에 초점을 두며,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독려함으로써 보다 높은 욕구를 달성하고 기대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Bass, 1985). 이처럼 변혁적리더십은 구성원의 가치관, 윤리, 그리고 장기적 목표를 바꾸어 개인을 혁신하는 과정이며, 구성원의 내적 동기를 이끌어내고 이들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포함하고 있

다. 이는 리더의 변혁적 리더십을 통해 구성원들이 자신의 집단에 소속감을 느끼고, 자신의 집단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몰두하게 하며 집단에 대한 기대감과 응집력을 강화 시킬 수 있도록 한다. 즉 구성원들의 자아실현 욕구를 높임으로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할 수 있다(Keller, 1992). 이러한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카리스마(Charisma)

카리스마는 여러 변혁적 리더십의 요인 중 가장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카리스마는 독일의 Max Weber가 관료제 이론에서 처음 소개되었는데, 그는 카리스마적인 리더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에게 강한 영향을 미치려는 특성이라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구성원에게 바람직한 가치관을 제공하여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성공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어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 또는 자기 확신에 대한 내적 행동에 에너지를 쏟는다고 하였다(House, 1977). 카리스마가 강한 리더는 자신감을 통해,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며, 뛰어난 언변술과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다(Bass, 1990). 또한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 할 수 있으며, 제시한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원을 동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정의하였다. 카리스마적 리더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리더는 일반 개인이 지니고 있지 못한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둘째, 절망적이거나 부정적 위기 상황에 대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구성원에게 리더는 다른 사람에 비해 차원이 다른 능력을 지닌 것으로 믿도록 해야 하며, 넷째, 리더는 지속적 성

과관리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신념과 역량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Avolio, & Bass 1988). 카리스마적 리더의 개성으로 강한 자신감, 분명한 자기결정성,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 문제 해결력 등이 있으며 만약 카리스마적 리더가 구성원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에는 카리스마가 리더의 특수성과 지적자극이 다른 요소와 얼마나 조화로운가에 달려있다고 하였다(유정인, 2009).

2) 개별적 배려(Individualized Consideration)

개별적 배려는 리더가 구성원 개인에게 섬세한 관심을 보여 개인의 욕구와 역량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대우해 줌으로서 구성원들이 보다 높은 비전과 성취 욕구를 높일 수 있도록 지지해주며, 스스로 내적으로 동기화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한주희, 정진철, 2001).

리더가 구성원을 대상으로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이끌어주는 멘토링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별적 배려 리더는 구성원과 친밀하게 접근하는 면대면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구성원의 정보 이해에 대한 욕구를 강화시키며, 문제를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해준다(Bass, 1985). 또한, 상사는 구성원으로 하여금 자신이 집단의 일원으로서 존재감 있는 개인임을 알게 함과 동시에 조직 내의 모든 구성원이 똑같이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도록 하기 때문에 상호간 신뢰감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성상훈, 2006). 아울러 상사의 개별적 배려로 인해 높아진 구성원의 직무만족과 리더에 대한 만족감은 궁극적으로 집단의 성과관리를 긍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김승현, 2009). 이는 구성원의 성장과 발전욕구에 대한 개인적 욕구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지고 구성원의 현재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만족감 증진 뿐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능력을 고무시키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적절한 과업을 주어야 한다(Spangler & Bass, 1994). 개별적 배려는 구성원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리더가 카리스마적이지만 구성원들에게 사려심이 부족할 경우 리더에 대한 충성심은 높아지지만 결과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리더는 카리스마적인 특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변혁적 리더의 특성은 가질 수 없다고 볼 수 있다(Avolio & Bass, 1988). 또한 개별적 배려는 비공식적이며 호의를 갖고 집단의 구성원을 대하는 등 개인의 자기개념과 정보에 대한 관심, 개인의 특성과 특정 욕구의 충족 등을 통하여 변혁적 과정을 촉진시킨다고 보고 있다(Bass, 1985).

3) 지적 자극(Intellectual Stimulation)

지적 자극이란 감정적인 자극에 의한 즉각적 행동 변화보다는 구성원들의 변화와 자극을 지속시키려는 리더의 행동을 의미한다(Bass, 1985). 변혁적 리더의 사고는 감각적이고 반응적이라기보다는 예방적이며 아이디어 창출에 있어 보다 창의적이며 보수적이라기보다는 급진적 성향을 보인다고 하였다(Bass, 1990). 또한 구성원들이 독립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며, 구성원들에게 집단과 조직에 대한 물음을 던질 수 있도록 하며, 자신의 발전을 통하여 새로운 관점의 사고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고무시켜 준다(유정인, 2009). 지적 자극은 문제에 대한 다른 인식을 가지게 하며 문제해결 방법에 대해 다양한 방법의 각성 수준을 가진다. 구성원을 지적으로 고무시키는 리더는 현재 경험하는 문제점을 개인이 정의한 미래 비전의 관점에 대비시킨다. 즉, 구성원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산할 수 있도록 하

며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지적 측면, 이해력 등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변혁적 리더는 구성원에게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촉진하여, 구성원에게 문제점을 분석함에 있어 기존의 방식이 아닌 보다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자극한다. 리더는 끊임없이 구성원에게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구성원들이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유발하는 것이다(Bass, 1985). 즉, 혁신적인 비전 및 방법을 세우는 리더들은 구성원의 아이디어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구성원과 공동으로 아이디어를 발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지적 자극은 구성원의 즉각적인 행동의 변화보다는 문제인식과 해결력, 상상력, 가치관을 변화시킨다(Bass, 1985). 따라서 지적 자극을 촉진하는 리더는 구성원에게 기존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를 참신한 관점으로 바라보게 할 수 있으며 닦친 문제에 대하여 이해력을 증가시키고 예전에는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던 사항을 비판적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Bass, 1990).

리더들은 구성원이 기존의 신념과 가치 등에 대하여 의문을 갖도록 유도하고 조직이 부딪히게 되는 조직의 다양한 문제와 조직의 강·약점을 이해하여 이를 개념화 하고 표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을 갖추게 하고 이러한 지적 자극은 정서적 자극과 결합되었을 때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리더가 구성원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리더 자신의 지적 능력이 높은 수준으로 해박해야 할 뿐 아니라 그러한 지식을 활용하여 부하들의 행동을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김덕상, 2002).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이 리더가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변혁적 리더는 조직의 미래와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며, 구성

원을 비전과 연결시켜 기대 이상의 내적동기를 발현시킨다. 그러므로 변혁적 리더는 구성원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구성원 개인을 격려할 수 있다(박경혜, 2008).

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일반적으로 상황에 따라 자아를 확장시키는 메타 인지적인 능력을 의미하며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일종의 성격 유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의 이론적 개념과 유형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자아탄력성의 개념

스트레스 상황에 잘 대처하고 역경 속에서도 빠르게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긍정적 사고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높은 탄력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다(장휘숙, 2001). 위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쉽게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타인에 비해 빨리 평소 상태로 되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Condly, 2006) 내·외적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는 것은 탄력성 때문이며, 탄력성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시 본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회복적 경향 및 탄성적 요인으로 어떠한 역경이나 어려움 속에서 다시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혀 상처받지 않음’의 의미와는 다르다. 즉, 위기 상황을 경험하면서 개인이 무너져 내렸지만 이전의 상태로 빠르게 회복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탄력성에 대한 연구들의

주요 화두는 이와 같은 스트레스 이전의 적응 수준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것이다(Garmezzy, 1993). 즉 자아탄력성은 환경적 상황적 요구에 부합하게 자아 통제력을 가진 것을 의미하며,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환경적 변화에 따라 이러한 조절에 유연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아탄력성의 개념을 종합해보면, 개인이 어떠한 위기 상황을 변화시키는 적응적 자원이다. 또한 보다 광의의 의미로는 내·외적 위기상황에 대한 자아통제력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역동적 능력과 역량을 의미한다(Rutter, 1979, 1985, 1987).

2) 자아탄력성의 유형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은 내·외적인 요인을 포함하여 복합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다.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는 가족 내부 또는 외부에서 받는 보호적 관계,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 긍정적 사고, 자신감, 타인과의 대인관계기술과 문제해결능력 등을 주요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Block과 Block(1980)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CSQ: California Child Q-Set)에서는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융통성, 자신감, 안정성, 창의성, 적극성, 자기표현능력, 인지능력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Klohen(1996)은 긍정적 정서, 대인관계 효율성, 자신감, 분노조절 능력 등을 구성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으로, 이지원, 유형근 및 신호선(2009)은 활력성, 대인관계,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을 하위요인으로 분류하였고, 김미향(2009)과 박병기, 이선영 및 송정화(2010)는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낙관성 요인으로 분류하여 긍정 심리학에서 강조하는 심리적 변인이 중복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이준석(2013)이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고, 구성요인은 능력, 동기, 사회적지지, 중재전략, 기대 요인으로 분류되어 있다.

자아탄력성은 낙관적 태도, 자신감, 대인관계, 자기통제력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낙관적 태도란 어떤 부정적 상황이 닥쳤을 때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자세를 의미한다. 둘째, 자신감은 개인이 어떤 상황에서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기 위한 감정 상태를 의미한다. Vealey(1986)는 자신감이란 개인이 운동 경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역량이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실성에서 발휘되는 신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셋째, 대인관계는 다층적 심리 특성을 지닌 개인과 타인의 상호작용이며 이러한 방식에 의해 대인관계의 질이 결정된다. 또한, 대인관계란 두 사람 혹은 상호 간에 발생하는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과정이다. 권석만(1997)은 개인이 다양한 환경에서 성장하며 여러 가지 사고와 행동적 특성 등을 보인다고 하였다. 넷째, 자기통제력은 개인의 목표달성을 위해 순간의 충동적인 욕구나 행동을 자제하며 자기를 조절하고 중도를 지키는 능력이다. 즉, 즉각적으로 충족하고 싶은 욕구가 각성되었을 때에라도 합리적인 판단으로 적절한 시기가 될 때까지 그 만족을 지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운동열정

열정이란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투자하고, 좋아하는 일을 향한 높은 수준의 접근경향성을 말한다. 열정은 임상심리영역에서 오랫동안 관심을 얻지 못했으나(임낙철, 2008), 일부 학자들이 열정의 동기적 측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동기란 개인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지속

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힘이다. 즉 개인에게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하여 도달하고자 하는 경향성이며, 인간 행동을 발생하게 하는 내적인 작용을 의미한다(김성배, 한상덕, 이상덕, 2009). 대표적으로 Frijda, Mesquita, Sonnemans, 그리고 Van Goozen(1991)은 열정을 개인이 정서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높은 우선순위라고 정의하였다. 기존의 열정과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고, 긍정심리학의 관점에서 Vallerand 등(2003)은 열정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열정이란 개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강력한 경향성이라고 정의하였다(Vallerand et al., 2003). 열정이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형태의 모습이며, 개인의 특성을 보여주고, 객체에 대한 강한 감정이나 열중하게 하는 감정적 특성이라고 주장하였다. Vallerand 등(2008)은 열정이 높은 성과를 달성하게 하며, 이는 개인이 집중력과 끈기를 가지고 자신의 관심 분야에 참여하게 해주는 원동력으로서 일종의 내적 동기를 발현시키는 중요한 원천이라 하였다. Harrell(2000)은 열정은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에 정신을 집중하며 매우 강렬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 "삶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낙관적 성향으로써 현재 업무 또는 현장에서 얼마나 집중하고 있으며 얼마나 강한 몰입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즉, 내적으로 깊은 곳에서부터 느껴지는 욕망으로 개인이 좋아서 일을 수행하고 그 성취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열정 척도를 개발하고 척도의 타당성을 입증하여 열정을 조화열정과 강박열정으로 구분하였다. 조화열정은 열정적 활동을 자신의 내면 깊이 이해하는 과정으로 자기정체감을 형성하며, 강박열정은 열정적 활동을 고정적 틀을 통해 내면화하는 과정으로 자기정체감을 형성한다(Goldberg, 1986; Vallerand, 2003) 운동열정의 구성요인에 대해 Vallerand(2003)는 자기결정

이론을 바탕으로 열정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 역시 조화열정과 강박 열정으로 구분하였다.

개념적으로 조화열정은 개인의 긍정적 심리상태를 의미하며, 강박열정은 부정적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박열정은 개별적 활동에 대하여 개인이 느끼는 책임감이나 의무감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수행하는 내적 작용이다(Mageau et al., 2005). 조화열정은 외부 대상에 집착을 보이지 않고 대상의 중요성을 민감하게 지각할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자신의 열정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강한 강박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의 호기심과 유혹에 견디기 힘든 활동을 하도록 심리적 압박과 강요를 경험한다. 또한 그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강한 심리적 부담감과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의무적 일 사이에서 갈등하는 상황에 놓인다. 가령, 비전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통제하는 힘으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에 반드시 자신이 속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목표가 부재한 자신의 인생은 상상할 수 없으며 강박적으로 목표 활동에 의존하기도 한다. 목표활동에만 전념하는 경우 가정을 돌보는 것을 등한시 하게 되는 등 삶의 여러 중요한 다른 부분과의 갈등을 경험한다(김혜선, 2009).

조화열정은 개인이 자신의 높은 관심도에 따라 열정적 활동을 내면화하여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Mageau 등(2005)에 의하면 조화열정은 어떤 것에 강박적 집착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포지션의 이해와 효율성을 인지할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개인의 활동에 열중하여 수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개인에게 내적동기를 불러일으키고 활력을 제공하며 조화로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개인의 열정 대상에 대한 집착 없이 통제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다른 일, 즉 개인의 삶과 조화를 이룬다.

4. 팀 응집력

1) 팀 응집력의 개념

팀 응집력은 구성원들이 집단에 머무르게 작용하는 힘이며, Cartwright와 Zander(1968)는 팀 응집성이 팀에 대한 융합, 사기, 구성원의 노력에 대한 조정 등과 높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Widmeyer와 Williams(1991)는 응집력을 사회적 응집력과 과제적 응집력으로 구분하여 팀의 존속 및 성공의 필수 요인으로 보고 있다.

한편, Cartwright(1968)는 응집력을 구성원이 집단 내에 존속해 있는 정도로 보았으며, 팀 응집력을 팀을 분열하려는 구성원 및 세력에 대한 집단적 저항력이라고 했다. 또한 Carron(1988)은 팀 응집력을 구성원 간에 이루어진 목표 및 성취목표성향에 대한 과제 또는 결과 지향 목표와 효과적인 수행 방법에 대한 팀 결속에 대한 힘으로 팀의 목표 달성을 위해 원활한 의사소통과 구성원 간에 애착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팀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단결력을 강화하고 구성원이 집단 내에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총체적 힘이라 볼 수 있다.

2) 응집력의 이론적 모형

Cartwright(1968)는 집단효율성과 팀 응집력을 향상시키는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포괄적인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였다. 집단 응집력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이 응집력을 일으켜 수행 결과를 나타낸다. 집단응집력을 결정하는 구성요인을 집단이 구성원에게 줄 수 있는 혜택, 구성원의 자발적 동기,

집단 목표성취도에 대한 기대, 타 집단과 비교했을 때의 수준으로 정하고, 이러한 네 가지 요인이 구성원으로 하여금 집단에 남아 있게 하는 힘을 조성하여 집단의 응집력이 생성된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응집력이 다시 집단에 대한 애착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집단이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짐으로 인해 집단 활동에 대한 구성원의 참여도가 높아져 구성원 각자가 자부심을 갖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Cartwright(1968)는 이러한 팀 응집력 측정을 위해서 다섯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 팀 구성원 간의 매력 측정, 둘째, 팀 전체로서의 매력 측정, 셋째, 개인이 팀 속에 존속하려는 의욕 측정, 넷째, 팀에 대한 친밀감 또는 동일시 정도의 측정, 다섯째, 앞에서 측정된 여러 요인들을 적정 비율로 측정한 다음 그 점수를 이용하여 팀 응집력 정도를 나타내는 종합 지표를 만드는 방법 등이다. 그러나 팀 응집력의 개념이 내적 성향과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어 팀 응집력 측정시의 차원과 팀 응집력의 구성요소에 대한 재논의가 이루어졌다. 즉, 개인 스스로는 응집력이 측정될 수 없고, 팀 응집력은 집단의 수준에서 개념화되고 측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팀 응집력을 측정할 때 개인과 집단의 차원을 구분하여 측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Mason & Griffin, 2002).

Carron(1988)는 스포츠 상황에서의 응집력에 대한 가장 우수한 이론으로 활용되고 있다. Carron(1988)은 스포츠 상황에서 응집력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스포츠 팀의 응집력은 집단의 목적과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결속을 강조하는 집단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역동적 과정이라고 정의하면서 사회적 측면과 과제적 측면을 상호 발달적 관점의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다. 스포츠 팀에서의 팀 응집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인, 팀 요인 그리고 지도자 요인의 총 4가지 요인으로 분류된다. 이들 중 환경적, 개

인적, 지도력 요인들은 모두 가장 필수적인 선행인자인 팀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적극적 기여를 한다고 하였다. 환경적 요인은 가장 일반적이고 간접적인 요인으로 각종 스포츠 관련 위원회의 조직성향이나 계약적 책임감 그리고 규범적 압력 등의 사회적인 상황 및 물리적인 환경을 포함하며, 개인적 요인은 팀 구성원 개개인의 성향인 태도, 동기의 유사성 등과 개인적 만족도, 그리고 개인적 특성인 인성, 사회적 배경, 성, 태도 등을 의미한다. 지도력 요인은 응집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 행동, 의사결정 유형, 지도자와 선수, 그리고 팀과의 관계 등을 포함하며, 팀 요인은 집단과제의 특성, 팀 성공 기간 및 안정도, 팀의 투과성(permeability), 집단의 구조 등을 포함하는 요인으로서 강력한 결속력 유발과 우리라는 집합체적인 감정에 대한 몰입을 의미한다.

그룹은 역동적이며, 상호 교류적이며, 활동적이다. 이러한 생명력은 그룹에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들에게 그룹 활동은 가장 일시적인 사회적 생활의 하나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룹 또는 조직에 가담하여 매일매일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활동하고 있다. 그룹 또는 조직의 형태는 다양하다. 즉, 직장, 군대, 정당 등에서부터 시작하여 사교모임, 교육교실 등의 수많은 크고 작은 그룹 또는 집단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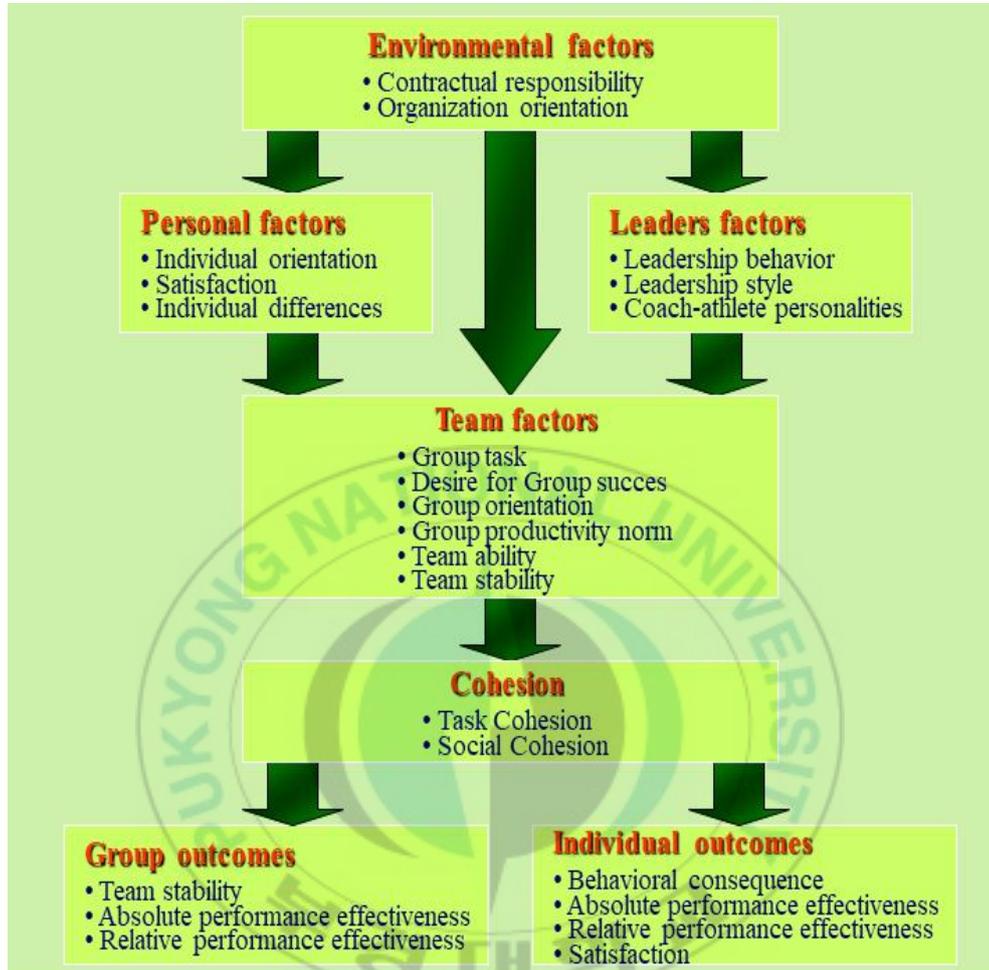


그림 1. 응집력의 이론적 모형(Carron, 1988)

한편, 인간사회에 그룹 또는 조직 활동이 없다면 사람들은 제각기 고립되어 질 것이고, 생산적이지 못하고, 세상에서 그 존재의 가치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Carron, 1993). 결과적으로 응집력은 팀 구성원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 Baumeister와 Leary(1995)에 따르면, 구성원 간 만족감은 높고 불안감은 낮은 경우 구성원의 결속력과 소속감이 강화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스포츠 팀 구성원 간 반사회적 또는 공격적 행위는 응집력 결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l-Yaaribi & Kavussanu, 2017). 따라서 팀 구성원 간 불화 또는 분쟁으로 인하여 형성된 부정적 감정은 팀원 관계를 악화시켜 팀 응집력은 낮아진다는 것이다.

즉, 그룹 구성원들 간의 경쟁과 협력, 그룹의 목표 달성에 대한 인식도 등이 중요한 요소들로 간주되고 있다. 스포츠 팀에 있어서 팀 응집력은 전체적인 팀의 동기를 유발시키고 팀의 수행력을 최대화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팀의 응집력과 팀 수행력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은 항상 같은 결과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팀 지도자의 스타일은 팀 응집력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그 지도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들이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도자의 리더십 유형 중 변혁적리더십을 적용하여 팀 응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팀 응집력과 팀 수행력과의 관계 응집력은 그룹이나 조직의 발전 단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져 왔으며 그룹 수행력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Carron(1982)은 팀 응집력은 그룹의 목적 또는 목표를 추구하는데 있어 그룹 원들이 융합하고 함께 결속하는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정의 하였다. 이러한 응집력은 정적이지 않고 변화한다고 하였다. 즉, 응집력이 높다가도 서서히 약화되고, 다시 강화되었다가 약화되어가는 패턴이 그룹 활동 중에 반복이 된다는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19년도에 부산, 경남, 대구 지역 고등학교 야구선수들을 대상으로 유목적적 표집법을 사용하여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연구목적과 의도를 설명하고 연구윤리 동의서를 받은 후 자기평가기입법으로 작성토록 하였다. 표집인원은 324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였고,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24부를 분석에서 제외하고 300명을 최종 유효표본으로 하였다<표 1>.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계(%)
남자	1학년	112(37.3)	300(100)
	2학년	102(34.0)	
	3학년	86(28.7)	
선수경력	5년 미만	27(9.0%)	300(100)
	5년 이상-7년 미만	110(36.7)	
	7년 이상-9년 미만	163(54.3)	
포지션	투수	132(44.0)	300(100)
	포수	30(10.0)	
	내야수	80(26.7)	
	외야수	58(19.3)	
입상성적	우승	159(53.0)	300(100)
	준우승	47(15.7)	
	4강	28(9.3)	
	8강	37(12.3)	
	16강	29(9.7)	

2. 측정도구

1) 설문지 구성

가. 변혁적리더십 척도

변혁적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해 Wright(1996)가 스포츠 상황에 맞도록 개발한 질문지와 김정완과 김정남(2002)이 사용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변혁적 리더십은 개별적 배려(11문항), 카리스마(11문항), 지적자극(5문항)으로 3요인 27문항을 포함하고 있고,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1점=전혀 아니다, 5점=매우 그렇다) 형식으로 반응하도록 구성되었다.

나. 자아탄력성 척도

운동선수의 자아탄력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준석(2013)이 개발한 운동선수 자아탄력성 척도를 사용한다. 자아탄력성은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으로 능력, 동기, 사회적지지, 중재전략, 기대의 5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1점=전혀 아니다, 5점=매우 그렇다) 형식으로 반응하도록 구성되었다.

다. 운동열정 척도

운동열정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유진과 정꽃님(2008)이 Vallerand et al.(2003)에 의해 개발된 열정척도를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척도를 황옥철과 박중길(2012)과 소영호(2016)의 연구에서 사용한 운동열정척도를 이용하였다. 운동열정 설문지는 조화열정(harmonious passion) 7문항과 강박열정(obsessive passion) 7문항의 두 가지 하위요인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는 척도로서,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1점=전혀 아니다, 5점=매우 그렇다) 형식으로 반응하도록 구성되었다.

라. 팀 응집력 척도

집단응집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Widmeyer와 Brawley 그리고 Carron(1985) 이 개발한 집단환경 설문지 (GEQ: group environment questionnaire)를 토대로 하여 국내에서 우리 스포츠의 문화 실정에 맞게 이한규와 김병현(1995)에 의해 표준화된 측정도구인 집단응집력 검사지 (GCQgroup cohesion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집단응집력 검사지는 모두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김영진(2000)이 사용한 팀 응집력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1점=전혀 아니다, 5점=매우 그렇다) 형식으로 반응하도록 구성되었다.

2)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1) 리더십 척도

변혁적리더십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hi^2/df=2.675$, IFI=.912, TLI=.900, CFI=.911, RMSEA=.075로 적합도 기준치에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나 수용 가능한 모형으로 판명되었다<표 2>.

표 2. 변혁적리더십의 확인적 모형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χ^2/df	IFI	TLI	CFI	RMSEA
모형	2.675	.912	.900	.911	.075
적합도 기준치	3.0 이하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08 이하

표 3. 변혁적리더십의 경로계수

	Path	Estimate	S.E.	C.R.	S.R.W	α
리2	<--- 카리스마	1.000			.644	
리3	<--- 카리스마	1.207	.120	10.027***	.654	
리4	<--- 카리스마	1.357	.122	11.161***	.745	
리5	<--- 카리스마	1.290	.112	11.473***	.769	
리6	<--- 카리스마	1.375	.114	12.099***	.825	.821
리7	<--- 카리스마	1.361	.116	11.780***	.797	
리8	<--- 카리스마	1.466	.120	12.224***	.837	
리10	<--- 카리스마	1.092	.111	9.805***	.637	
리11	<--- 카리스마	1.127	.107	10.492***	.690	
리12	<--- 개별적배려	1.000			.693	
리13	<--- 개별적배려	.893	.085	10.474***	.637	
리14	<--- 개별적배려	1.037	.085	12.261***	.748	
리15	<--- 개별적배려	1.109	.084	13.125***	.803	
리16	<--- 개별적배려	1.118	.086	13.021***	.796	
리17	<--- 개별적배려	.916	.083	11.100***	.674	.810
리18	<--- 개별적배려	1.172	.087	13.399***	.821	
리19	<--- 개별적배려	.828	.079	10.465***	.634	
리20	<--- 개별적배려	1.098	.093	11.747***	.714	
리21	<--- 개별적배려	1.055	.088	11.935***	.727	
리22	<--- 개별적배려	.959	.078	12.333***	.752	
리23	<--- 지적자극	1.000			.801	
리24	<--- 지적자극	1.075	.072	15.007***	.841	.819
리25	<--- 지적자극	.806	.072	11.204***	.649	
리26	<--- 지적자극	.818	.068	12.077***	.692	

변혁적리더십 척도의 총 27문항의 측정항목에 대해 다중상관제곱(SMC) 값이 낮은 1, 9, 27번 문항을 삭제한 후, 24문항의 측정항목에 대해 2차 확

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준화 회귀계수(SRW)는 .634-.841로 기준치인 .50을 상회하고 있어 모든 측정항목이 수렴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또한, 표준오차(SE)는 .068-.122로 나타났고, 기각역(CR)은 ± 1.96 이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p < .001$) 척도의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2) 자아탄력성 척도

자아탄력성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hi^2/df=2.303$, IFI=.937, TLI=.905, CFI=.935, RMSEA=.066으로 적합도 기준치에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나 수용 가능한 모형으로 판명되었다<표 4>.

표 4. 자아탄력성의 확인적 모형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χ^2/df	IFI	TLI	CFI	RMSEA
모형	2.303	.937	.905	.935	.066
적합도 기준치	3.0 이하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08 이하

자아탄력성 척도의 총 14문항의 측정항목에 대해 표준화 회귀계수(SRW)값이 낮은 10, 14번 문항을 삭제한 후, 12문항의 측정항목에 대해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준화 회귀계수(SRW)는 .507-.798로 기준치인 .50을 상회하고 있어 모든 측정항목이 수렴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또한, 표준오차(SE)는 .101-.203으로 나타났고, 기각역(CR)은 ± 1.96 이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p < .001$) 척도의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표 5. 자아탄력성의 경로계수

	Path	Estimate	S.E.	C.R.	S.R.W.	α
자아1	<--- 사회적지지	1.000			.696	.778
자아2	<--- 사회적지지	.989	.182	5.438***	.579	
자아3	<--- 기대	1.000			.721	.790
자아4	<--- 기대	1.139	.131	8.682***	.798	
자아5	<--- 동기	1.000			.639	.813
자아6	<--- 동기	1.021	.137	7.452***	.636	
자아7	<--- 동기	.705	.101	6.981***	.560	
자아8	<--- 중재전략	1.000			.733	.822
자아9	<--- 중재전략	.953	.176	5.405***	.614	
자아11	<--- 능력	1.000			.507	.736
자아12	<--- 능력	1.060	.133	7.958***	.563	
자아13	<--- 능력	1.386	.203	6.841***	.702	

(3) 운동열정 척도

자아탄력성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hi^2/df=2.999$, IFI=.942, TLI=.920, CFI=.942, RMSEA=.080으로 적합도 기준치에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나 수용 가능한 모형으로 판명되었다<표 6>.

표 6. 운동열정의 확인적 모형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χ^2/df	IFI	TLI	CFI	RMSEA
모형	2.999	.942	.920	.942	.080
적합도 기준치	3.0 이하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08 이하

표 7. 운동열정의 경로계수

	Path	Estimate	S.E.	C.R.	S.R.W.	α
열정1	<--- 조화열정	1.000			.551	
열정2	<--- 조화열정	1.295	.125	10.350***	.640	
열정4	<--- 조화열정	1.507	.209	7.196***	.581	.891
열정5	<--- 조화열정	1.610	.212	7.591***	.631	
열정6	<--- 조화열정	1.709	.209	8.195***	.727	
열정7	<--- 조화열정	1.809	.223	8.105***	.709	
열정8	<--- 강박열정	1.000			.766	
열정9	<--- 강박열정	.890	.071	12.458***	.738	
열정10	<--- 강박열정	1.129	.080	14.121***	.847	.867
열정11	<--- 강박열정	.810	.072	11.194***	.670	
열정12	<--- 강박열정	.708	.070	10.156***	.613	

운동열정 척도의 총 14문항의 측정항목에 대해 표준화 회귀계수(SRW) 값이 낮은 3, 14번과 다중상관제곱(SMC)값이 낮은 13번 문항을 삭제한 후, 11문항의 측정항목에 대해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준화 회귀계수(SRW)는 .551-.847로 기준치인 .50을 상회하고 있어 모든 측정항목이 수렴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또한, 표준오차(SE)는 .070-.223으로 나타났고, 기각역(CR)은 ± 1.96 이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p < .001$) 척도의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4) 팀 응집력 척도

팀 응집력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hi^2/df=2.926$, IFI=.942, TLI=.900, CFI=.931, RMSEA=.078으로 적합도 기준치에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나 수용 가능한 모형으로 판명되었다<표 8>.

표 8. 팀 응집력의 확인적 모형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χ^2/df	IFI	TLI	CFI	RMSEA
모형	2.926	.932	.900	.931	.078
적합도 기준치	3.0 이하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08 이하

표 9. 팀 응집력의 경로계수

	Path	Estimate	S.E.	C.R.	S.R.W	α
응집력1	<--- 팀응집력	1.000			.611	
응집력2	<--- 팀응집력	1.056	.097	10.938***	.699	
응집력3	<--- 팀응집력	1.247	.122	10.238***	.748	
응집력4	<--- 팀응집력	1.247	.122	10.256***	.752	
응집력5	<--- 팀응집력	1.041	.110	9.473***	.676	
응집력6	<--- 팀응집력	1.233	.104	11.904***	.712	
응집력7	<--- 팀응집력	.912	.106	8.602***	.591	
응집력9	<--- 팀응집력	.834	.112	7.439***	.504	.893
응집력10	<--- 팀응집력	.896	.112	7.985***	.538	
응집력11	<--- 팀응집력	.771	.093	8.251***	.568	
응집력12	<--- 팀응집력	.796	.099	8.046***	.610	
응집력16	<--- 팀응집력	.935	.096	9.703***	.692	
응집력17	<--- 팀응집력	.880	.089	9.912***	.713	
응집력18	<--- 팀응집력	.956	.102	9.388***	.662	
응집력19	<--- 팀응집력	.656	.076	8.604***	.594	

팀 응집력 척도의 총 20문항의 측정항목에 대해 표준화 회귀계수(SRW) 값이 낮은 13, 14, 15번과 다중상관제공(SMC)값이 낮은 8, 20번 문항을 삭제한 후, 15문항의 측정항목에 대해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준화 회

귀계수(SRW)는 .504-.748로 기준치인 .50을 상회하고 있어 모든 측정항목이 수렴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또한, 표준오차(SE)는 .076-.122로 나타났고, 기각역(CR)은 ± 1.96 이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p < .001$) 척도의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3. 연구의 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연구가설을 중심으로 변혁적리더십이 자아탄력성, 운동열정 및 팀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다음과 같은 모형을 설정하였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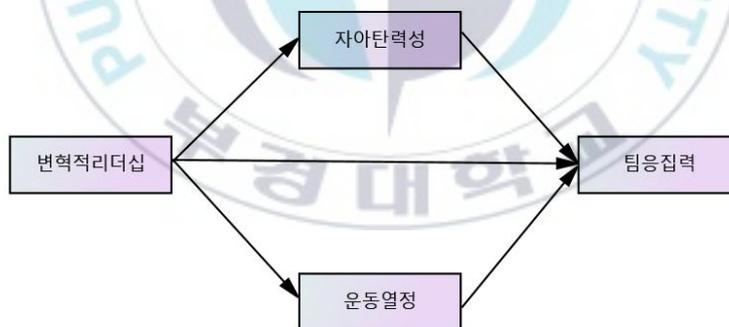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4. 자료처리 방법

Window SPSS Program 22.0과 AMOS 22.0을 이용하여 자료 분석을 실시할 것이며,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구성타당도와 요인별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내적일관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를 검증하였다. 셋째, 고등학교 야구선수들이 지각한 코치의 변혁적 리더십과 자아탄력성, 운동열정 및 팀 응집력의 각 변인 간 상호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각 변인 간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모든 통계적 유의확률은 $p < .05$ 로 설정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장에서는 변혁적리더십이 자아탄력성, 운동열정 및 팀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 및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1. 변혁적리더십, 자아탄력성, 운동열정, 팀응집력 간의 상관관계

표 10. 각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변인	1	2	3	4
1. 변혁적리더십	1			
2. 자아탄력성	.286**	1		
3. 운동열정	.235**	.438**	1	
4. 팀 응집력	.327**	.472**	.275**	1

** $p < .01$

각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변혁적리더십과 자아탄력성($r=.286$), 변혁적리더십과 운동열정($r=.235$), 변혁적리더십과 팀 응집력($r=.327$), 자아탄력성과 운동열정($r=.438$), 자아탄력성과 팀 응집력($r=.472$), 운동열정과 팀 응집력($r=.275$)으로 각 변인 간 모두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변혁적리더십, 자아탄력성, 운동열정, 팀응집력 간의 인과관계

1) 변혁적리더십이 자아탄력성과 팀응집력에 미치는 영향

표 11. 각 변인간 인과관계 경로계수

Path	Estimate	S.E.	C.R.	S.R.W
변혁적리더십 → 자아탄력성	.175	.034	5.156***	.286
자아탄력성 → 팀응집력	.587	.074	7.948***	.412
변혁적리더십 → 팀응집력	.182	.045	4.040***	.209

*** $p < .001$

결과를 살펴보면, 변혁적리더십은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CR=5.156, $p < .001$), 자아탄력성은 팀 응집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R=7.948, $p < .001$). 그리고 변혁적리더십은 팀 응집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R=4.040,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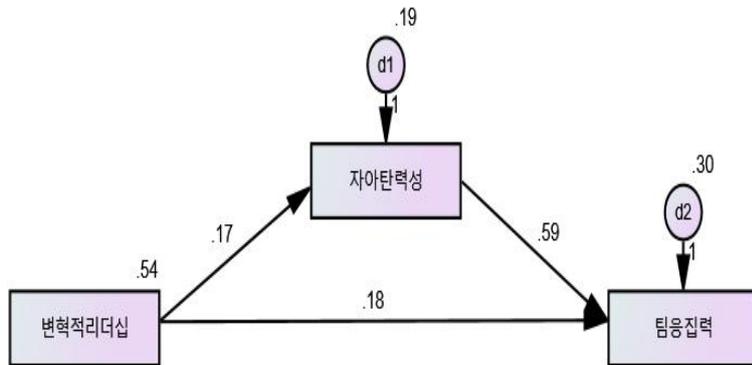


그림 3. 변혁적리더십과 자아탄력성 및 팀 응집력의 경로모형

표 12. 인과효과 분해

	Path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변혁적리더십	→ 팀 응집력	.209		.209
변혁적리더십	→ 자아탄력성 → 팀 응집력		.286 X .412 = .118	.327

변혁적리더십이 자아탄력성과 팀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직접효과는 $\beta = .209$, 간접효과는 $\beta = .118$, 총효과는 $\beta = .327$ 로 나타났고, 자아탄력성의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확률은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변혁적리더십이 팀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변혁적리더십이 운동열정과 팀응집력에 미치는 영향

표 13. 각 변인간 인과관계 경로계수

Path	Estimate	S.E.	C.R.	S.R.W
변혁적리더십 → 운동열정	.201	.048	4.173***	.235
운동열정 → 팀 응집력	.213	.056	3.816***	.210
변혁적리더십 → 팀 응집력	.242	.048	5.061***	.278

*** $p < .001$

결과를 살펴보면, 변혁적리더십은 운동열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CR=4.173, $p < .001$), 운동열정은 팀 응집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R=3.816, $p < .001$). 그리고 변혁적리더십은 팀 응집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R=5.061,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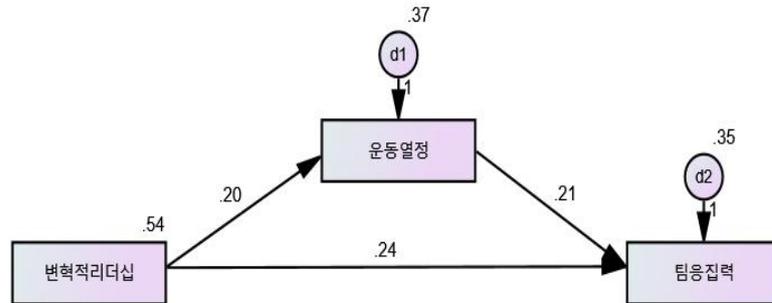


그림 4. 변혁적리더십과 운동열정 및 팀 응집력의 경로모형

표 14. 인과효과 분해

Path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변혁적리더십 → 팀 응집력	.278		.278
변혁적리더십 → 운동열정 → 팀 응집력		.235 X .210 = .049	.327

변혁적리더십이 운동열정과 팀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직접효과는 $\beta = .278$, 간접효과는 $\beta = .049$, 총효과는 $\beta = .327$ 로 나타났고, 운동열정의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확률은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변혁적리더십이 팀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운동열정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변혁적리더십이 자아탄력성, 운동열정 및 팀응집력에 미치는 영향

표 15. 각 변인간 인과관계 경로계수

Path	Estimate	S.E.	C.R.	S.R.W
변혁적리더십 → 자아탄력성	.175	.034	5.516***	.286
변혁적리더십 → 운동열정	.201	.048	4.173***	.235
자아탄력성 → 팀응집력	.554	.074	7.519***	.392
운동열정 → 팀응집력	.313	.057	4.816***	.257
변혁적리더십 → 팀응집력	.176	.046	3.816***	.204

*** $p < .001$

결과를 살펴보면, 변혁적리더십은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CR=5.516, $p < .001$), 변혁적리더십은 운동열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R=4.173, $p < .001$). 그리고 자아탄력성은 팀응집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R=7.519, $p < .001$). 운동열정은 팀응집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R=4.816, $p < .001$). 변혁적리더십은 팀응집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R=3.816,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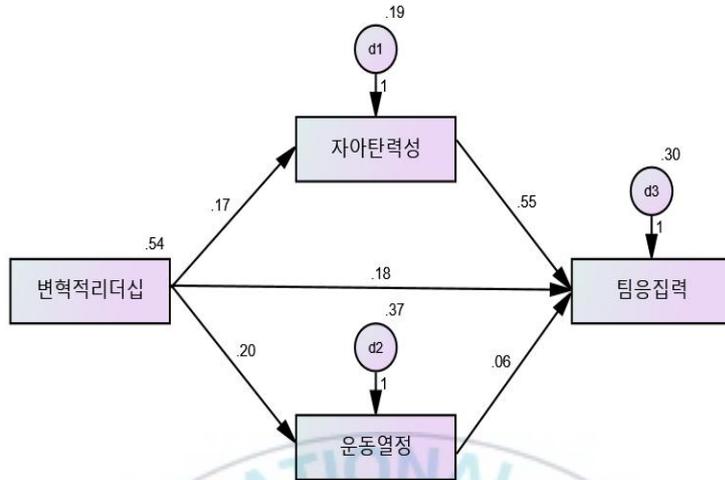


그림 5. 변혁적리더십, 자아탄력성, 운동열정 및 팀 응집력의 경로모형

표 16. 인과효과 분해

Path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변혁적리더십 → 팀응집력	.205		.205
변혁적리더십 → 자아탄력성 → 팀응집력		.286 X .392=.112	.377
변혁적리더십 → 운동열정 → 팀응집력		.235 X .257=.060	

변혁적리더십이 운동열정과 팀응집력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직접효과는 $\beta=.205$, 간접효과는 $\beta=.172$, 총효과는 $\beta=.377$ 로 나타났고, 자아탄력성과 운동열정의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확률은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p<.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변혁적리더십이 팀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운동열정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각 변인 간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팀 응집력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hi^2/df=2.905$, $IFI=.912$, $TLI=.909$, $CFI=.911$, $RMSEA=.080$ 으로 적합도 기준치에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나 수용 가능한 모형으로 판명되었다.

표 17. 구조방정식모형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χ^2/df	IFI	TLI	CFI	RMSEA
모형	2.905	.912	.909	.911	.080
적합도 기준치	3.0 이하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08 이하

표 18. 구조모형 변인 간 경로계수

Path	Estimate	S.E.	C.R.	S.R.W	간접효과	
					β	p
변혁적리더십 → 자아탄력성	.165	.036	4.521***	.365		
변혁적리더십 → 운동열정	.191	.044	4.400***	.310		
자아탄력성 → 팀 응집력	.855	.157	5.459***	.494		
운동열정 → 팀 응집력	.142	.074	2.925***	.213		
변혁적리더십 → 팀 응집력	.144	.053	3.713***	.284	.215	.003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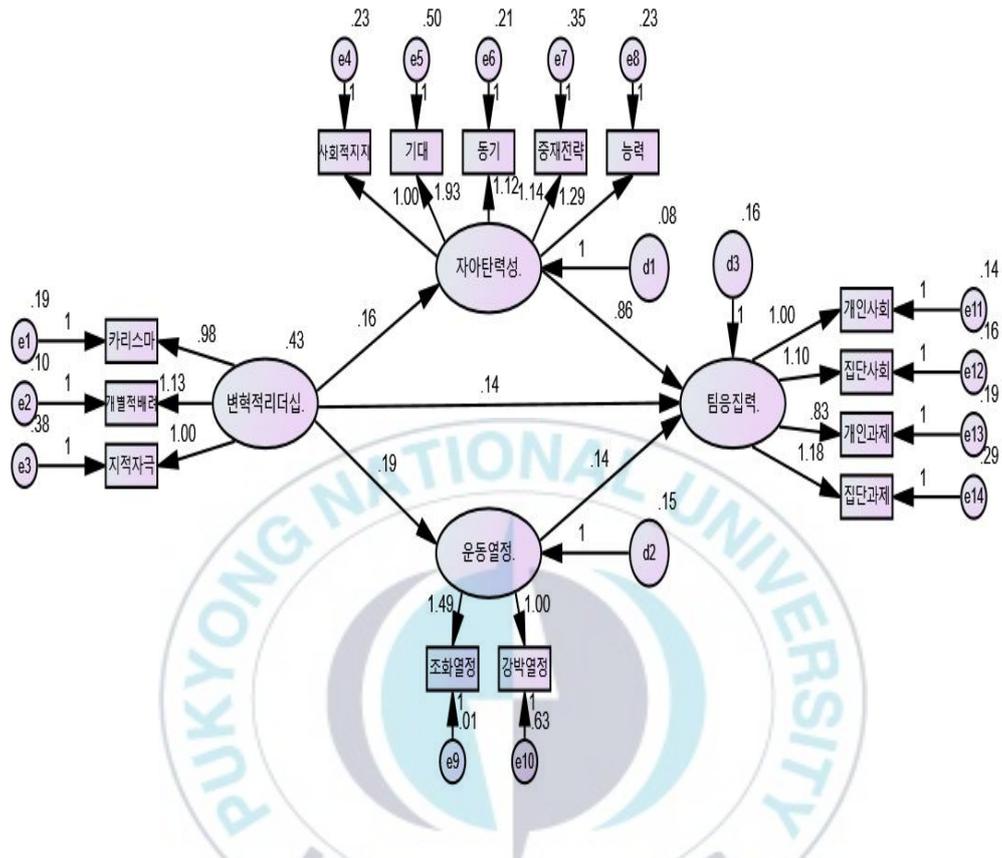


그림 6. 구조방정식 모형

결과를 살펴보면, 변혁적리더십은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CR=4.521, p<.001$), 변혁적리더십은 운동열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R=4.400, p<.001$). 그리고 자아탄력성은 팀 응집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R=5.459, p<.001$). 운동 열정은 팀 응집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R=2.925, p<.001$). 변혁적리더십은 팀 응집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R=3.713, p<.001$). 변혁적리더십이 팀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운동열정의 간접효과는 $\beta = .215$ 로 나타났고,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확률은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변혁적리더십이 팀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운동열정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본 연구에서는 변혁적리더십이 자아탄력성, 운동열정 및 팀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변혁적리더십이 자아탄력성과 팀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변혁적리더십은 자아탄력성과 팀 응집력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들을 배려하고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며, 운동선수들의 잠재력과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변혁적 리더십이다. 이성재(2017)의 연구에 따르면 효과적인 리더십이 운동선수의 자아탄력성을 개선시키기 때문에 상호간에 유대감이 강해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도자의 과거 성공 경험을 통해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선수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축적시키는 것이 신뢰가 형성되고 만족도, 응집력의 순환적 관계가 생성된다고 하였다. 또한, 김재식 등(2018)등은 지도자의 변혁적 리더십을 통해 획득한 운동효율성은 개개인의 선수들이 팀 내에서 인정과 배려를 받고 있다고 인지하고 효과적 동기부여의 기제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학생일수록 교사의 지도성 수준이 높다고 지각할 가능성이 크고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적응과 관련 요인들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리더십과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항 중 과제주도성 리더십과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항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고 하여(김주성, 2015),

본 연구에서도 고등학교 운동선수임을 고려할 때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요인인 지적자극과 개별적 배려가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관계임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야구경기는 팀 스포츠이지만 개인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과 대처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도자는 스스로 역경에 대처해낼 수 있는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심리기술훈련을 통해 자아탄력성을 높여 팀 응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리더의 영향과 훈련을 통해 개선될 수 있으며, 이는 곧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변혁적 리더십이 팀 응집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자아탄력성이 매개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지도자는 팀 응집력을 높이는 지도방법에 있어서 자아탄력성을 높여야 팀 응집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지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도자가 해야 할 언어적 설득, 자신감 향상 전략, 내적동기를 높이는 전략 등을 접목시켜야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2. 변혁적리더십이 운동열정과 팀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

운동열정은 사람 내부의 에너지원으로, 지도자의 리더십과 선수들의 열정적인 모습은 활기찬 운동 분위기를 가져오며, 재미를 통한 동기유발은 선수들의 중도이탈을 방지하고 운동지속의도로 이어질 수 있다. 지도열정요인이 운동참여 동기를 유발하는 지도자의 중요한 매력요인임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성창훈(200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신의 코치가 바람직한 수행 후, 즉

정정강화로써 칭찬, 긍정적 피드백 등이 주어질 때, 운동만족도와 코치 신뢰 및 호감도가 높다고 하여 본 연구의 변혁적 리더십과 열정과의 관계를 지지해준다. 또한, 김영훈 등(2013)과 공성배 등(2013)은 변혁적 리더십이 운동열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운동열정이 선수만족과 운동지속의도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또한, 김도연(2015)은 고등학교 운동선수의 열정이 팀 응집력을 통해 선수만족 및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운동열정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여 팀 응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야구 지도자들은 현장에서 리더십을 통한 응집력을 높이는 방안에서 운동열정을 어떻게 심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된다.

야구선수들이 훈련이 집중하거나 운동수행에 대한 동기를 촉진시키는 특성이 지도자의 적극적인 자율성 지지의 노력이 첨가되어야 하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촉진시키는 낙관성, 즉 긍정심리자본을 지도자가 운동선수들의 인지된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고려해봐야 한다.

고등학교 야구선수들의 운동열정은 지도자의 리더십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데 결정적인 이유로 지도자는 선수들이 대학 진학이나 프로에 입단하기 위한 목표설정을 뚜렷하게 해주고, 미래의 성공적인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게 각인시켜주며 대리경험과 언어적 설득을 통해 열정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열정을 높이는 예측변인으로 변혁적리더십이 선수들에게 중요한 심리변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소영호(2016)의 연구에서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이 코치와의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조화열정이 증가하고, 강박열정은 인지적·행동

적 측면에서 코치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운동선수가 지각하는 코치-선수관계는 운동열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힌 연구(Lafreniere et al., 2008, Lafreniere, Jowett, Vallerand, & Carbonneau, 2011)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3. 변혁적리더십이 자아탄력성, 운동열정 및 팀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을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회복력 또는 대처능력으로 간주할 때 자기관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이는 조민선과 김현식 그리고 이제행(2005)의 유도선수와 지도자의 신뢰형성 분석 연구를 통해 자기관리가 높을수록 사회응집성이 향상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자기관리를 잘 한다는 것은 선수들의 경기력이 높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능력이 오랜 선수 생활을 통한 경험과 경력에 밀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허정훈과 김병준 및 유진(2001)은 높은 자신감을 가진 선수들은 경쟁에서 승리하는 데 유리할 수도 있으나 경쟁이 심한 스포츠 사회에서 쉽게 자신감이 낮아지기도 하며 반복되는 실패와 패배는 선수들을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자신감은 좋은 결과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이끌어 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김병준(2003)은 자신의 운동능력이 높다고 인식하는 선수가 자신이 보통이라고 지각하거나 낮다고 지각하는 선수들보다 신체적, 정신적 관리 등에서 더 높은 자기관리 수준을 보인다고 판단한다. 이것은 지각된 운동능력이 높고 경기력이 우수한 선수는 경기력

이 낮은 선수에 비해 자기관리력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선수들의 자기관리 행동이 예측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평소에 경기를 위해 끊임없이 준비하고 열심히 훈련한 선수가 자신감을 갖고 경기에 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경기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집단 목표달성을 위하여 팀 동료간 훈련에 대한 개인적 집중도를 증진시키며, 팀 소속 선수로서 팀에 대한 소속감, 안정성, 대화 목표 달성 노력의 인식을 높여준다(이한규, 김병현, 1995). 이문규(2008)와 이지향(2015)은 팀 종목인 농구선수의 자기관리와 집단 응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특히, 운동선수들의 자기관리는 팀의 응집성을 높여주며, 이는 경기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안길영, 조은희, 2003). 학생선수는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기 때문에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도자는 선수 및 학부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선수들의 자아탄력성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와 종목은 다르지만 야구와 유사한 팀 스포츠 관점에서 핸드볼 지도자의 긍정적인 리더십은 선수의 자기관리 및 팀 응집력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으며, 나아가 경기력에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최종만, 2018). 그러나 지도자의 권위적 행동은 학생선수에 있어서 자기관리 및 팀 응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핸드볼 지도자의 민주적 리더십 유형이 자기관리 및 팀 응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변혁적리더십을 통한 자아탄력성은 팀 응집력과의 긍정적 인과관계를 통해 운동선수들의 슬럼프, 고충 등이 발생했을 때 자기를 조절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팀 응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운동열정이 팀 응집력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진(2011)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조화열정은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하였고, 강박열정 또한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조금 준다고 나와 있었지만, 연구결과는 조화열정이 주관적 안녕감의 긍정적인 역할을 준 것은 확인되었고, 강박열정은 선행연구결과와는 다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것은 연구 대상의 차이와 프로 집단과 고등학교 집단의 선수들의 성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밝혔다.

정윤덕(2018)과 이용현(2009)의 연구에서 축구경기와 농구경기의 팀워크 행동요인 중 열정이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이용현(2009)의 연구에서 시합 팀워크의 2차 일반주제영역 중 별개로 몰입이란 팀워크 요인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야구경기 상황에서 팀이 맞닥뜨리는 지속적인 성공경험이 선수의 몰입도를 높여 결과적으로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팀워크의 중요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활동적이고 표현적, 연민과 인정이 많을수록 사회응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서표현성과 사회응집력의 관계에 대한직접적인 선행연구결과는 찾을 수 없지만, 본 연구결과는 운동열정이 팀응집력에 높은 영향력을 보여주는 Mayer와 Salovey(1995)의 연구에서 의사소통 만족수준과 정서표현이 집단응집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팀 구성원들의 긍정적 정서가 높은 그룹 일수록 사회응집력에 높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일부 지지하였다. 또한, 변혁적리더십이 팀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운동열정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도자는 다양한 심리기술훈련을 적용하여 선수들의 자아탄력성과 운동열정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장에서는 연구가설을 중심으로 분석된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결론 및 제언을 제시하였다.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야구선수들이 지각한 코치의 변혁적 리더십이 자아탄력성, 운동열정 및 팀 응집력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야구선수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심리적인 기초 정보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2019년도에 부산, 경남, 대구 지역 고등학교 야구선수들을 대상으로 유목적적 표집법을 사용하여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연구목적과 의도를 설명하고 연구윤리 동의서를 받은 후 자기평가기입법으로 작성토록 하였다. 표집인원은 324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였고,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24부를 분석에서 제외하고 300명을 최종 유효표본으로 하였다. 측정도구로는 5점 리커트 형식의 검사지를 사용하였고, 자료분석방법으로는 Window SPSS Program 22.0과 AMOS 22.0을 이용하였고 단계별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구성타당도와 요인별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내적일관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를 검

증하였다. 셋째, 고등학교 야구선수들이 지각한 코치의 변혁적 리더십과 자아탄력성, 운동열정 및 팀 응집력의 각 변인 간 상호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각 변인 간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모든 통계적 유의확률은 $p < .05$ 로 설정하였다. 결론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혁적리더십은 자아탄력성과 팀 응집력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변혁적리더십은 운동열정과 팀 응집력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변혁적리더십과 팀 응집력에 영향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운동열정은 부분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자면 야구 지도자들은 현장에서 운동선수들에게 변혁적리더십을 발휘하여 팀 응집력을 높이고 자신감과 만족감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인 수행 향상을 이끌어내도록 해야 하며 특히,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변인인 자아탄력성과 운동열정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개개인에게 적합한 다양한 심리기술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론을 통해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자면 변혁적리더십 이

외에 다양한 리더십의 유형을 분석하고 야구선수들의 동기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심리요인을 질적 연구와 델파이 기법을 이용하여 팀 응집력을 통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심층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필요성이 있다.



참고 문헌

- 강신녀, 전정우, 정태겸(2015). 고등학교 태권도선수의 지각된 코치-선수 관계유지가 기본심리 욕구 및 운동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54(1), 211-225.
- 강지훈(2012). 생활체육 참가자의 기본적 심리욕구와 운동지속 및 포기의도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3(4), 117-139.
- 강현우, 김형겸, 서보영, 김승철, 장세용(2015). 청소년 축구선수들의 완벽주의성향, 운동열정, 운동몰입의 구조적 관계와 운동열정의 매개효과. **한국체육과학회지**, 24(4), 643-656.
- 고은정(1997). 애착유형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공성배, 박성배, 김영훈, 김보겸(2013). 청소년 유도선수들의 기본심리욕구가 운동의욕 및 운동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2(5), 651-661.
- 구형모(2000). 자아탄력 집단 의 성격특질.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 권석만(1997).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 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덕상(2002). 변혁적 및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도연(2015). 고등학교 축구선수의 열정, 팀 응집력, 선수 만족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미향(2009). 중학생을 위한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상담과 지도**, 44, 343-356.
- 김병준(2003). 운동선수 자기관리행동의 측정. **체육과학연구**, 14(4), 125-140.
- 김성배, 한상덕, 이상덕(2009). 골프참가자의 참가동기와 참가정도에 따른 몰입경험 및 정신 건강의 인과적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5, 1133-1142.
- 김승현(2009). **여성리더십 및 팔로워십 유형과 조직몰입과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김영갑, 최경훈(2016). 학생선수의 열정과 운동정서 및 스포츠몰입의 관계. **코칭능력개발지**, 18(2), 77-84.
- 김영진(2000). **코치의 지도성 유형과 선수만족 및 집단응집성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영훈, 장성호, 공성배, 김보겸(2013). 멘토링이 청소년 유도선수들의 열정 및 운동지속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2(3), 145-154.
- 김육한, 이봉(2015). 골프 참여자들의 참여동기와 운동열정, 운동몰입, 운동지속수행의 구조적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54(2), 137-148.
- 김재식, 심영균, 이석준(2018). 변혁적 리더십이 선수들의 운동만족과 지도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태권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국웰니스학회지**, 13(1), 99-109.
- 김정완, 김정남(2002). 변혁적 리더십이 운동선수의 지도자 동일시와 신뢰, 그리고 운동행동에 미치는 효과.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3(3), 43-64.
- 김주성(2015).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리더십과 학교생활적응의 관**

- 계: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 김주원(2015). 축구지도자의 행동유형과 선수의 운동몰입 및 팀 응집력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호남대학교 대학원.
- 김학재, 양명환, 김덕진(2010). 고교 및 대학 운동선수들이 지각한 변혁적, 거래적 리더십과 운동동기 및 조직몰입간의 인과관계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15(3), 193-208.
- 김혜선(2009). 깬블링 열정척도(GPS)를 이용한 스포츠토토 구매자의 시장세분화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박경혜(2008). 태권도지도자의 리더십유형이 조직문화 및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박병기, 이선영, 송정화(2010).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검증. **교육심리연구**, 24(1), 61-82.
- 백혜경, 양명환(2017). 운동선수들의 스트레스, 운동탈진 및 심리적 행복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한국체육학회지**, 56(2), 125-143.
- 성상훈(2006).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연구: 상사 신뢰와 상사-부하 적합성의 조절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성창훈(2000). 청소년 운동선수의 리더십 지각: 코칭행동의 지각과 선호성.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1(1), 55-74.
- 소영호(2016). 고등학교 운동선수의 코치-선수관계와 운동열정 및 인지된 경기력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55(5), 105-115.
- 소영호(2019). 고등학교 운동선수의 정서지능과 운동열정 및 스포츠몰입의

-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58(1), 43-55.
- 송춘현(2003). **스포츠지도자의 리더십과 선수의 가외적 노력이 운동몰입과 팀응집력 및 운동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안길영, 조은희(2003). **핸드볼 팀의 리더십 행동과 집단 응집성 및 수행인지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0, 1205-1216.
- 안아주, 김은하(2016). **운동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운동 정체성을 통한 자아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 태권도 선수를 대상으로**. **상담학연구**, 17(1), 287-307.
- 유정인(2009). **변혁적 리더십과 심리적 욕구 및 운동만족의 구조적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유진, 정꽃님(2008). **무용 열정의 이원론적 모형 분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9(1), 163-175.
- 이문규(2008). **농구지도자의 리더십과 선수의 자기관리 및 응집성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이성재(2017). **고등학교 태권도 지도자의 서번트 리더십이 선수의 자아탄력성 및 운동성과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이용현(2009). **농구경기의 팀워크 개념구조 및 팀워크 지각 척도개발**.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0(3), 1-16.
- 이준석(2013). **운동선수 자아탄력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4(3), 65-86.
- 이지원, 유형근, 신호선(2009). **역할놀이를 활용한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아동교육학회지**, 18(3), 201-212.

- 이지항(2015). 농구 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과 자기관리 전략이 집단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60, 387-397.
- 이한규, 김병현 (1995). 집단 종목 팀의 응집력 검사 개발. **체육과학논총**, 6(1), 15-26.
- 이현정(2018). 대학남자 팀 스포츠선수의 지도자 신뢰와 운동몰입 및 팀 응집력의 관계. **한국발육발달학회지**, 26(3), 339-346.
- 임낙철(2008). 지체장애선수의 정서, 열정, 시합전략.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0(4), 111-127.
- 장휘숙(2001). 정신 병리를 차단하는 요인으로서의 탄력성. **한국심리학회지**, 14(1), 113-127.
- 정구인, 송기현(2017). 긍정적 사고와 행복지각의 관계에서 청소년 선수들의 열정과 정체성의 매개효과. **한국체육학회지**, 56(1), 181-195.
- 정윤덕(2018). 아마축구 선수들의 직무열의에 관한 선행요인 및 결과요인 분석.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23(1), 133-148.
- 정혜인(2010). 아동의 학교적응성 탐색을 위한 자아탄력성척도 개발. **초등교육연구**, 23(2), 361-382.
- 조민선, 김현식, 이제행(2005). 여자유도선수와 지도자의 신뢰형성하기. **한국체육학회지**, 44(2), 513-522.
- 최미리, 이양출(2012). 노인의 여가스포츠활동 참가에 따른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완충효과. **한국체육학회지**, 51(1), 75-90.
- 최종만(2018). 핸드볼 지도자의 리더십 유형이 자기관리 및 팀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5), 665-681.
- 최진(2011). 운동선수 열정과 주관적 안녕감의 구조 관계. 미간행 박사학

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한주희, 정진철(2001). 변혁적 리더십과 팀 유효성에 관한연구 -자율육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인사관리학회지**, 24(2), 145-166.
- 허정훈, 김병준, 유진(2001). 대학 운동선수들의 자기관리 전략: 평소연습과 시합상황의 비교. **한국체육학회지**, 40(1), 187-198.
- 허진영, 송기현(2012). 수구선수들이 지각하는 코치-선수간의 상호작용과 스포츠 능력믿음 및 팀 응집력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1(2), 395-407.
- 황옥철, 박중길(2012). 청소년 운동선수의 열정과 지각된 코치-선수 관계가 공격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51(5), 279-292.
- Al-Yaaribi, A., & Kavussanu, M.(2017). Teammate prosocial and antisocial behaviors predict task cohesion and burnout: The mediating role of affect.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39(3), 199-208.
- Avolio. B. J., & Bass, B. M.(1988). Transformational leadership, charisma, and beyond. In J. G. Hunt. B. R. Baliga, H. P.Dachler, & C. A. Schriesheim(eds.). *Emerging leadership vistas*. Lexington Mass: Lexington Books. pp. 29-49.
- Bass, B. M.(1985). *Leadership and performance Beyond Expectation*. New York: Free Press, 31, 4-22.
- Bass, B. M.(1990). From transactional leadership to transformational leadership: leaning to share the vision. *Organizational Dynamics*, 18(3), 19-31.

- Baumeister, R. F., & Leary, M. R.(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97-529.
- Block, J. H., & Block, J.(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13, 39-101, Hillsdale, NJ: Erlbaum.
- Block, J., & Kremen, A, M.(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Burns, J. M.(1978). *Leadership*. NY: Harper and Row.
- Cao, X.(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school judo player's passion, exercise flow, and exercise satisfaction. *The Journal of Korean Alliance of Martial Arts*, 19,(4), 105-116.
- Carron, A. V.(1982). Cohesiveness in Sport Groups: Interpretations and Considerations. *Journal of Sport Psychology*, 4, 123-138.
- Carron, A. V.(1988). *Group dynamics in sport*. London Ontario: Spodym publishers.
- Carron, A. V.(1993). The sport team as an effective group. In J. Williams(Ed.), *Applied Sport Psychology: Personal growth to peak performance*(pp. 110-121). Mountain view CA: Mayfield.
- Carron, A. V., Widmeyer, W. N., & Brawley, L. R.(1985). Th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success cohesion in sport teams. *Journal of Sport Psychology*, 7, 244-266.

- Cartwright, D.(1968).The nature of group cohesiveness. In D. Cartwright & A. Zander(eds.), *Group dynamics: Research and theory*(3rd ed.), New York: Harper & Row.
- Cartwright, D., & Zander, A.(1968). *Group dynamics: Research & theory*. New York: Harper, 42.
- Cohn, M. A., Fredrickson, B. L., Brown, S. L., Mikels, J. A., & Conway, A. M.(2009). Happiness Unpacked: Positive emotions increase life satisfaction by building resilience. *Emotion Washington*, 9(3), 361-368.
- Condly, S. J.(2006). Resilience in Children: A Review of Literature With Implications for Education.
- Frijda, N. H., Mesquita, B., Sonnemans, J., & Van Goozen, S.(1991). The duration of affective phenomenal emotions, sentiments and passions. In K.T. Strongman(Ed.), *International review of studies on emotion*(Vol. 1, pp. 187-225). New York: Wiley.
- Garnezy, N.(1993). Children in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56, 127-136
- Goldberg, C.(1986). The interpersonal aim of creative endeavor.Journal of Creative Behavior, 20, 35-48.
- Harrell, K. D.(2000). *Attitude is everything: 10 life-changing steps to turning attitude in to action*. NY: Cliff Street Books.
- House, R. J.(1977). A 1976 theory of charismatic leadership. In J. G. Hunt & L. L. Larson(eds.), *Leadership: the cutting edge*. Carbondale, Ill.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 Keller, R. T.(1992).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the performanc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groups. *Journal of Management, 18*, 489-501.
- Klohn, E. C.(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5), 1067-107.
- Klohn, E. C.(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067-1079.
- Lafreniere, M. A. K., Jowett, S., Vallerand, R. J., & Carbonneau, N.(2011). Passion for coaching and the quality of the coach-athlete relationship: The mediating role of coaching behaviors.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12*, 144-152.
- Lafreniere, M. A. K., Jowett, S., Vallerand, R. J., Donahue, E. G., & Lorimer, R.(2008). Passion in sport: On the quality of the coach-athlete relationship.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30*, 541-560.
- Mageau, G. A., Vallerand, R. J., Rousseau, F. L., Ratelle, C. F. & Provencher, P. J.(2005). Passion and Gambling: Investigating the Divergent Affective and Cognitive Consequences of Gambling.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5*, 100-118.
- Mason, C. M., & Griffin, M. A.(2002). Group Task Satisfaction: Applying the Construct of Job Satisfaction to Groups. *Small Group Research, 33*, 271-312.

- Revich, K., & Schatte, A.(2002). *The Resilience Factor*. New York: Broad Books.
- Rutter, M.(1979). Protective factors in children's responses to stress and disadvantage. In M. W. Kent, J. E. Rolf(Eds.), *Primary prevention of psychopathology: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48-74). Hanover, NH: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 Rutter, M.(1985).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s and resistance to psychiatric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7, 598-611.
- Rutter, M.(1987).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 316-331.
- Sullivan, P. J., & Gee, C. J.(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athletic satisfaction and intra team communication. *Group dynamic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11(2), 107-116.
- Tugade, M. M., Fredrickson, B. L., & Feldman, B. L.(2004).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positive emotional granularity: Examining the benefits of positive emotions on coping and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72(6), 1161-1190.
- Vallerand, R. J., Blanchard, C M., Mageau, G A., Koestner, R., Ratelle, C,F., Leonard, M., Gagne, M. & Marsolais, J.(2003). Les passiondel'ame: On obsessive and harmonious pa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4), 756-767.
- Vallerand, R. J., Ntoumanis, N., Philippe, F. L., Lavigne, G. L., Carbonneau, N., Bonneville, A., et al.(2008). On passion and

- sports fans: A look at football. *Journal of Sports Sciences*, 26(12), 1279–1293.
- Vealey, R. S.(1986). Conceptualization of sport confidence and competitive orientation: prelim in gary investigation and instrument development. *Journal of Sport Psychology*, 8, 221–246.
- Wedmeyer, W. N., Barwley, L. R., & Carron, A. V.(1985). The effects of group size in sport.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12, 177–190.
- Weinberg, R. S., & Gould, D.(1995). *Foundations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Widmeyer, W. N., & Williams, J. M.(1991). The cohesion–performance outcomes relationship in a coaching sport.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13, 364–371.
- Wright, P. L.(1996). *Managerial leadership*. NY: Routledge.

[부록]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여러분들이 지각하는 코치의 변혁적리더십과 자아탄력성, 운동열정 및 팀 응집력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지에서 묻는 것에는 맞고 틀림이 없으니, 평상시 느끼신 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각 문항에 응답할 때 자신 또는 지도자를 떠올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답변은 본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김백만 드림

H.P. 010-9454-5158

※ 다음의 문항을 읽고 천천히 생각한 후 **최근 6개월 우리 팀 감독의 행동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각 항목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V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지도자는 체육인으로서 능력을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지도자는 체육지도자로서 뛰어난 자질을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지도자는 고정적 틀에 박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행동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지도자는 선수들이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지도자는 내가 장래목표에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지도자는 자신감을 나타내어 선수들이 자신을 믿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지도자는 나에게 사명감을 불어 넣어 준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의 지도자는 나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준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지도자는 운동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지도자는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의 지도자는 선수들이 자신을 믿게 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가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래를 분명히 약속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지도자는 나의 장래 목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의 지도자는 나의 장래를 걱정하고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에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의 지도자는 나의 장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의 지도자는 내가 자신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의 지도자는 나에게 미래의 꿈을 심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의 지도자는 내가 장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도록 강조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의 지도자는 나의 운동 목표를 나와 함께 의논해서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의 지도자는 문제가 생기면 나의 의견을 존중해서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의 지도자는 나에게 장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보여준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의 지도자는 내가 새로운 지식과 운동기술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의 지도자는 내가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도록 자극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의 지도자는 나에게 새로운 연습방법을 생각해보라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의 지도자는 여러 각도에서 문제해결 방법을 찾도록 강조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의 지도자는 선수 스스로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높이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 자아탄력성 질문: 나에게 (문항 내용을 대입하세요) 시합 및 훈련 상황에서 불안이나 피로, 외상 등으로 하여금 긍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적응하게 하는 힘이다.

각 항목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V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족이라는 것은	①	②	③	④	⑤
2. 친한 친구와 이성 친구는	①	②	③	④	⑤
3. 가족이 거는 기대는	①	②	③	④	⑤
4. 주위의 관심은	①	②	③	④	⑤
5. 경기 후 느낄 수 있는 성취감은	①	②	③	④	⑤
6. 지금까지 내가 힘들게 운동한 것은	①	②	③	④	⑤
7. 메달을 획득 또는 승리한다는 것은	①	②	③	④	⑤
8. 경기 후 편히 쉴 수 있는 휴식은	①	②	③	④	⑤
9. 평소에 내가 즐기는 취미활동은	①	②	③	④	⑤
10. 심리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은	①	②	③	④	⑤
11. 시합이나 상대선수에 대한 자신감은	①	②	③	④	⑤
12. 강인한 정신력은	①	②	③	④	⑤
13. 가족이나 팀에 대한 나의 책임감은	①	②	③	④	⑤
14. 나의 라이벌과 경쟁하는 것은	①	②	③	④	⑤

※ 아래의 질문들은 여러분의 **운동열정**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항목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V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운동은 나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끔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 운동에서 얻는 새로운 것들은 나에게 그 이상의 가치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3. 운동은 나에게 기억에 남을만한 경험을 가져다준다.	①	②	③	④	⑤
4. 운동은 내가 나 자신을 좋아하도록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삶에서 운동은 다른 활동과 조화를 이룬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게 운동은 하나의 열정이며, 나는 그 열정을 잘 통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운동에 완전히 빠져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운동 없이 살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운동에 대한 충동이 매우 강하여 신체활동을 멈출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운동이 없는 나의 삶을 상상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정서적으로 운동에 의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운동에 대한 욕구를 통제하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운동에 거의 사로잡혀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운동에 따라 내 기분 상태가 좌우된다.	①	②	③	④	⑤

※ 아래의 질문들은 여러분의 **팀 응집력**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항목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V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우리 팀 선수들은 기술 및 작전 미팅을 자주한다.	①	②	③	④	⑤
2.우리 팀 선수들은 팀의 목표를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우리 팀 선수들은 동료의 기술향상을 위해 서로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4.우리 팀 선수들은 시합에 지고 있더라도 게임을 포기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우리 팀은 승리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①	②	③	④	⑤
6.우리 팀 선수들은 승리를 위한 기술이나 전략에 대해 다함께 모여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7.우리 팀 선수들은 휴가 때에도 서로 연락하여 함께 만난다.	①	②	③	④	⑤
8.우리 팀 선수들은 서로에게 기분 상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9.우리 팀 선수들은 서로 간에 나쁜 감정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0.우리 팀 선수들은 편을 가르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1.우리 팀 선수들은 동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2.우리 팀 선수들은 시합에 지더라도 서로에게 격려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3.우리 팀 선수들은 항상 컨디션을 잘 조절한다.	①	②	③	④	⑤
14.우리 팀 선수들은 자신의 포지션 연습을 따로 한다.	①	②	③	④	⑤
15.우리 팀 선수들은 자기 능력에 맞는 훈련 목표를 세우고 개인 연습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6.우리 팀 선수들은 시합장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경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17.우리 팀 선수들은 자유 시간에 동료, 선·후배 선수들과 같이 잘 어울린다.	①	②	③	④	⑤
18.우리 팀 선수들은 동료 선수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19.우리 팀 선수들은 동료 선수들과 서로 친하게 지낸다.	①	②	③	④	⑤
20.우리 팀 선수들은 동료 선수들의 기념일(생일 등)을 챙긴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여러분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V표를 해 주시고 빈칸을 채워주십시오.

1. 귀하의 학년은?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2. 귀하의 선수경력은?

- ① 5년 미만 ② 5년 이상 - 7년 미만 ③ 7년 이상 - 9년 미만

3. 귀하의 포지션은?

- ① 투수 ② 포수 ③ 내야수 ④ 외야수

4. 우리 팀의 입상 성적은?

- ① 우승 ② 준우승 ③ 4강 ④ 8강 ⑤ 16강

본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